

주보

2026. 9. 13.

위임목사 **이영훈**

(Senior Pastor Rev. Younghoon Lee)

부 목 사 **엄태욱(목회)**

김윤수(교무) 차진호(청년·개척)

◆ 2026 표어 ◆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 2026 교회목표 ◆

1. 말씀으로 선한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
2.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3.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국제교단 연합·하느님의 성회

여의도순복음교회
YOIDO FULL GOSPEL CHURCH

0723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5
15, Gukhoe-daero 76-gil, Yeongdeungpo-gu, Seoul

새로운 도약 
희망의 70년을 향하여

주 일 예 배 순

Sunday Worship Service

2026. 9. 13.

예배로 부르심 요(John) 4:24 사회자

Invocation President

찬송 8장(통9장) 4절 다같이(일어서서)

Hymn Hymn No. 8 v. 4 All Together(Please Stand)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일어서서)

Confession The Apostles' Creed All Together(Please Stand)

찬송 1부: 93장 2·3·4부: 305장 주일저녁: 94장 다같이

Hymn (통93장) (통405장) (통102장) All Together

기도 기도자

Prayer Prayer

성경봉독 사회자

Scripture Reading President

1부 빌(Phil.) 3:3 2·3·4부 왕하(2Kgs.) 18:3~4

5부 대학청년 왕하(2Kgs.) 2:7~11 주일저녁 단(Dan.) 9:19

찬양 찬양대

Anthem Choir

설교 설교자

Sermon Preacher

1부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 알아야 할 일 임태욱 목사

What We Must Know to Rejoice in the Lord Rev. Taewook Um

2·3·4부 산당을 제거한 히스기야 왕 이영훈 목사

King Hezekiah Removed the High Places Rev. Younghoon Lee

5부 대학청년 멘토 엘리야와 멘티 엘리사 차진호 목사

Elijah the Mentor and Elisha the Mentee Rev. Jinho Cha

주일저녁 목숨을 건 예배 김정환 목사

Life-or-Death Worship Rev. Junghwan Kim

기도와 결신 설교자

Prayer & Altar-Call Preacher

헌금기도 기도자

Offering Prayer

찬송 주기도문(635장) 다같이(일어서서)

Hymn The Lord's Prayer All Together(Please Stand)

축도 설교자

Benediction Preacher

2026. 9. 16.

수요일예배순

Wednesday Worship Service

사 회 / 1부 10시 30분 남형덕 목사 2부(수요찬양) 19시 30분
 예배로 부르심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1부: 446장(통500장) 다같이
 기도 1부: 이우세 장로
 성경봉독 1부: 마(Matt.) 19:16~17, 20~22 2부: 창(Gen.) 22:1~5 사회자
 찬양 1부: 베데스다 찬양대 2부: 호산나 찬양대
 설교 진정한 부자(II) 1부: 이영훈 목사
 예배(이름, 이레, 이삭) 2부: 신에스터 목사
 헌금기도 1부: 전상호 안수집사

2026. 9. 18.

금요일성령대망회순

〈2026년도 서리집사 임명예배 및 온 가족 금요일성령대망회〉

사 회 / 윤호근 목사 20시 30분
 기도 김중석 장로
 성경봉독 행(Acts) 2:42 사회자
 찬양 갯세마네 찬양대
 설교 부흥하는 교회 이영훈 목사

2026. 9. 19.

토요일예배순

Saturday Worship Service

사 회 / 이준희B 목사 오전 7시
 기도 허규홍 장로
 성경봉독 수(Josh.) 1:5 사회자
 찬양 가브리엘 찬양대
 설교 의심과 두려움과 공포가 다가올 때 권일두 목사
 헌금기도 김세호 안수집사

금주의 찬양

Choir Anthem

구 분	찬양대명	지휘자	찬 양	구 분	찬양대명	지휘자	찬 양
주일1부	베 다 니	강 내 우	길을 만드시는 분	주일저녁	에벤에셀	윤 현 진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주일2부	베들레헴	데이비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수 요 1부	베데스다	이 중 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일3부	예루살렘	김 광 현	여리고의 싸움	수요찬양	호 산 나	윤 규 섭	사슴이 시냇물을
주일4부	나 사 렷	김 호 식	승전가	금요일성령대망회	갯세마네	박 상 현	하나님 보좌 앞에서
5부 대향반	임마누엘	이 수 범	주만 찬양합니다	토요일예배	가브리엘	이 용 중	성도의 신앙

오늘의 말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
 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이하줄임)

(왕하 18:3~4)

사 회

1부 07:00 신 의 규목사
 2부 09:00 김 민 철목사
 3부 11:00 김 형 건목사
 4부 13:00 이 종 태목사
 5부 14:30 이 산 성목사
 주일저녁 17:00 이승준B목사

대표기도

1부 은 종 호 장 로
 2부 이 원 섭 장 로
 3부 장 세 동 장 로
 4부 최 성 태 장 로
 5부 전 종 학 장 로
 주일저녁 유 창 선 장 로

헌금기도

1부 이 기 화 안수집사
 2부 박 호 석 안수집사
 3부 이 문 주 안수집사
 4부 이 승 재 안수집사
 5부 강 효 지 성 도
 주일저녁 이 중 환 안수집사

산당을 제거한 히스기야 왕

(King Hezekiah Removed the High Places)

왕하(2Kgs.) 18:3~4

이 세상에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야로 묵상합니다. 열왕기를 보면 많은 선한 왕들이 우상을 없앴지만 산당까지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와 요시아는 우상과 산당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우리도 악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선하고 복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1. 산당을 없애지 못한 이유 (Why Could the High Places Not Be Removed?)

이스라엘의 왕들이 산당을 쉽게 없애지 못한 이유는 백성들이 편리함과 익숙함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된 후에도 백성들은 먼 길을 가기보다 집 가까이 있는 산당에서 제사드리기 원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요구 때문에 왕들도 산당을 쉽게 없애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산당의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이방의 우상숭배와 타락한 종교 풍습이 혼합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가장 순수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러한 산당의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상과 산당을 단호하게 제거했습니다(왕하 18:3~4). 우리도 편리함과 익숙함을 이유로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있는 산당이 있다면 과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2. 우리의 산당 (The High Places in Our Lives)

오늘날 우리에게도 '자기 만족'이라는 산당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교회를 삶의 중심에 두기보다 내가 편한 대로 주님을 섬기려는 모습입니다. 처음 은혜받았을 때의 감격과 사모함을 잃어버리고 오래 교회를 다녔다는 이유로 습관처럼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중심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입니다. 설교가 마음에 들 때만 은혜받았다고 여기거나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모습 역시 '자기 만족'을 중심에 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자기 만족의 신앙을 내려놓고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3. 산당 대신에 세워져야 할 성전 (Build the Temple in Place of the High Places)

우리 삶에서 모든 산당을 제거했다면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기중심의 신앙에서 예수님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요 14:6, 엡 1:22). 또한 히스기야 왕이 우상과 산당을 모두 제거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세상의 지위와 권세, 부귀와 영화 그리고 자녀와 사업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창 22:16~18).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자체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소식

News Board

◆ 2026년도 서리집사 임명예배-일시: 9월 18일(금) 오후 8시 30분 / 장소: 대성전 / 설교: 이영훈 목사

예 배

- 9월 둘째 주 새벽예배-일시: 9월 14일(월)~9월 18일(금) 새벽 5시 30분 / 장소: 대성전
설교: 이영훈 목사(제직특화 15일), 이준희B 목사(14일), 임태욱 목사(16일), 정용훈 목사(17일, 18일)
- 2026년도 9월 장로회 월례기도회-일시: 9월 18일(금) 오후 7시 / 장소: 뱀엘성전(세계선교센터 7층) / 설교: 이영훈 목사

모 집

- 교무국 찬양특별교구 베들레헴 찬양대(주일2부) 찬양대원 모집-문의 ☎ 02-6181-6702, 6704
자각: 본 교회 1년 이상 출석, 물·성령 침례받은 성도 / 모집파트: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 교육영성훈련원 2026년 제55회 마더스드림 참가자 모집-문의 ☎ 02-6181-7469, 7483
일시: 10월 16일(금)~17일(토) 오전 10시 / 장소: 세미나실(제1교육관 10층) / 대상: 여성 성도 80명(선착순)

안 내

- 오늘 결신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가 베들레헴성전에서 있습니다.
온라인 새가족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으로 등록 및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안수집사회 2026 신임 안수집사 봉사처 임명식 및 파송식
일시: 9월 13일(주일) 오전 6시 50분 / 장소: 안수집사회실(세계선교센터 3층) / 대상: 2026년 신임 안수집사
- 2026년 순복음 호스피스 하반기 보수교육-문의 ☎ 02-6181-6540
일시: 9월 16일(수) 오후 1시 / 장소: 베들레헴성전 / 강사: 안해용 교수(CTS다움세대지원센터 센터장)
- 신앙계 9월호가 나왔습니다. 구독하신 후 성경공부 및 전도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9월 13일(주일) 마라톤 개최로 일부 구간의 교통이 통제되오니 성도님들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차량통제 07:25~09:40).

◆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는 교회 내 각종 판매행위(다단계 등) 또는 성도 간 투자권유 및 금전거래를 금지합니다.

▣ 다음 주간(9/20, 9/23, 9/25, 9/26) 대표기도(장로)

주일예배(9/20)						수요일예배(9/23)	이천수
1부	2부	3부	4부	5부 대학청년	주일저녁	금요성령대망회(9/25)	조일원
안인정	김종복	성열안	김영식D	이근영	박규생	토요일예배(9/26)	박경민

▣ 교회 대표전화 (주간) ☎ 02-6181-9191, (야간) ☎ 02-6181-9000~3

▣ 의례팀(장례 상담 및 조화 신청 시간 07:00~20:00) ☎ 02-6181-6533

칭찬의 기술

칭찬은 많이 할수록 좋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칭찬에도 방향이 있습니다. 1998년 미국 컬럼비아대 연구진은 초등학교 5학년생 128명에게 같은 문제를 풀게 한 뒤, 모두를 칭찬하되 덧붙이는 말은 다르게 했습니다. 한쪽에는 “참 똑똑하구나”라고, 다른 쪽에는 “정말 열심히 했구나”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문제를 직접 고르게 하자,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똑똑하다”라는 말을 들은 아이들 가운데 67%는 틀릴 걱정이 없는 쉬운 문제를 골랐지만, “열심히 했다”라는 말을 들은 아이들 가운데 92%는 배울 점이 많은 문제를 선택했습니다. 이후 매우 어려운 문제를 풀게 해 실패를 경험하게 한 뒤, 처음과 같은 수준의 문제를 다시 풀게 했습니다. 앞의 아이들은 점수가 떨어지고, 뒤의 아이들은 점수가 올랐습니다.

‘똑똑하다’라는 말은 분명 칭찬이지만, 아이에게는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겨 줍니다. 그 결과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일은 피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반면 ‘열심히 했구나’라는 말은 아이가 실제로 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짚어 주어, 그 노력이 다음에도 이어지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칭찬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막연히 듣기 좋은 말보다 “오늘 끝까지 정리해 줘서 정말 고마웠어요.”처럼 구체적인 행동을 들어 칭찬해 보세요. 그러면 상대는 자신의 긍정적인 모습을 떠올리며, 그 행동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 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대한 '가'의의의 의회

여의도순복음교회
YOIDO FULL GOSPEL CHURCH

0723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5
15, Gukhoe-daero 76-gil, Yeongdeungpo-gu, Seoul

교회 대표번호 ☎ 02-6181-9191